

지역 소식통

고창군, 행안부 재난관리 평가 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재난관리평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 책임기관의 재난관리 단계별(예방·대비·대응·복구) 역량을 평가하는 것으로 국가 재난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올해에는 23개 중앙부처와 243개 지방자치단체(시·도 17곳, 시·군·구 226곳), 66개 공공기관 등 32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고창군은 재난대응 역량 단계별 40개 지표 중 기관장 등 인터뷰와 예경보시설 활용 재난관리지원 비축 등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우수기관 수상으로 군은 기관표창, 특별교부세, 포상금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삼덕읍 고창군수는 "이번 우수기관 선정을 계기로 더욱 안전한 고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19일까지 추가 신청

정읍시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가신청을 이달 19일까지 받는다.

이번 추가 신청은 잔여분 발생에 따른 것으로 주택(부속건물 포함)에 설치된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참고, 측사 등 비주택 철거 제외)과 보관·방치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일반가구 기준 최대 700만원이며 지원 상한금액 초과 시 자부담이 발생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전액지원된다.

신청은 해당 건축물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자원순환과 또는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마켓, 지역 소상공인에 큰 힘

군 지역 온라인쇼핑몰, 4만여명 회원 확보 소상공인·소비자 가교 역할 특출

고창군에서 지역으로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고창마켓'이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도 지속 성장하며 고창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2021년 문을 연 고창마켓은 3년차에 접어들며, 4만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고창군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소비자에게는 고품질 고창 농산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공급하고, 생산자에게는 다각적인 판매처 확보와 유통 단계를 간소화해 매출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고창마켓'은 올해 20억원 매출을 목

표로 금호익스프레스와의 업무협약 체결, 인테나샵 운영, 제철장터, 알파쇼핑 등 판매플랫폼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북부지역의 수박축제 등 플리마켓 추진 등을 통한 홍보 마케팅 결과, 이미 상반기에 전년도 전체 매출 실적을 상회하고 있다.

이외에도 '실맛이 프로모션', '가정애(愛) 달' 등 시기에 맞는 기획전을 수시로 열고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를 통한 소비자와의 교감 바이어 초청행사를 통해 고창의 우수농수산물을 소개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를 지속적으로 유입시켜

온 것이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된다.

군은 하반기에도 '고창마켓'의 다양한 온라인 프로모션과 이벤트를 기획하고 고창마켓 상표 브랜드 개발을 통한 검색광고 유입증대, 해외쇼핑몰 진출 등 판매 플랫폼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창마켓 관계자는 "고창군 관내가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쇼핑몰이만큼 대외적인 홍보전략을 더욱 착실히 마련해 고창의 우수한 농특산물 판매를 위한 발전 방안을 끊임 없이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미래 이끌어갈 꿈나무 지원'

정읍시민장학재단, 우수인재 장학생 모집

정읍시민장학재단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인재 장학금 장학생을 선발한다.

우수인재장학금은 공고일 기준 정읍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부·모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최종합격자는 8월 14일 정읍시민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장학생 선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시 또는 시민장학재단 홈페이지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학수 이사장은 "열정을 갖고 꿈을 향해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우수인재 장학금이 힘이 되길 바란다"며 "마음껏 재능과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4년 대상 220만원, 전문대생 180만원으로 총 3억 6100만원이다. 재단의 선발기준에 따라 성적과 생활 정도를 평가해 장학생을 최종 선정한다.

/정읍=김대환기자

희망자는 장학생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오는 15일부터 24일까지 부·모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최종합격자는 8월 14일 정읍시민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장학생 선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시 또는 시민장학재단 홈페이지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학수 이사장은 "열정을 갖고 꿈을 향해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우수인재 장학금이 힘이 되길 바란다"며 "마음껏 재능과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장학재단은 지난 2001년 우수인재장학금 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약 2800명의 장학생에게 37억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군민우선 적극행정 · 협업 우수사례 6건 선정

군민 우선 행정 우수공무원

부안군은 지난 9일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명)을 최종 선정하였다.

이번 경진대회는 행정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응과 창의적·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한 사례뿐만 아니라 부서의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을 활성화하여 선제적으로 행동한 사례도 함께 발굴하여 적극행정의 다양성을 제고하였다.

각 부서에서 추천한 적극행정·협업 우수사례 31건 중 실무심사를 거쳐 6건의 사례를 선정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최종 발표심사를 통해 군민 우선주의 행정을 위해 노력한 우수공무원의 최종 순위를 결정하였다.

심사 결과 민원과 순유미 주무관의 민원과 '빈집 철거지원사업' & 환경과 '슬레이트 철거사업' 연계를 통한 적극행정 추진 사례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순유미 주무관의 사례는 빈집 철거지원 수요에 맞추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합 신청서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이어서 계획형 홍선영 주무관의 '농업경영체 현황화 팩스민원 서비스 전파'와 재무과 김호성 주무관의 '세금 안내는 줄 일었다니 땅까지 찾아주세요!'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다음으로 빈집(공가) 수도계량기 직권 정지 처분으로 선제적 민원 예방을 위해 노력한 상하수도사업소 최우오

수도행정팀장과 '챌린지테마파크' 내 변신비밀길 관리 보존을 위하여 군시행사 간의 협업체계를 끌어낸 환경과 양정우 (現변신변장, 집단형 새우양식장의 판매의 어려움을 축제 개최를 통한 어민 소득 증대로 전환한 농촌활력과 김경수 푸드플랜팀장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상반기 적극행정·협업 우수사례 담당 공무원에게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인사상 우대조치와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6년 연속 선정

부안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25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6년 연속 공모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앞으로 2025년~2028년까지 국비 14억원을 포함한 총 20억원을 투입해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 이용시설 개선 △노후 주택 보수 △마을 내 위험 시설물 제거 △CCIV, 가로등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안군수는 "봉은마을의 취약한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참고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2곳 선정

정읍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보건지소 2개소가 선정돼 사업비 10억 2000만원(국비 9억 4000만원, 도비 8000만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화된 공공건축물의 쾌적한 사용 환경 조성과 에너지 성능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친환경 리모델링 사업이다.

시는 이번 공모에 대비해 지난해 12월부터 희망건축물 조사를 시작으로 올해 4월 현지조사 및 컨설팅 등 체계적인 추진을 통해 공모에 선정되는 쾌

거를 거뒀다.

공모 선정에 따라 리모델링 대상인 삼골보건지소와 신내보건지소에 외벽 단열재, 창호, 친환경 천장재, 냉난방 장치, 폐열회수형 환기 장치 등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공사를 진행한다. 공사는 2025년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보건지소 환경을 개선해 시민들에게 더욱 쾌적하고 건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구시포·동호 해수욕장 개장... 40일간 운영

고창군이 10일 오전 서해안의 대표 휴양지인 구시포·동호 해수욕장에서 '무사고 안전가이드'를 열고 해수욕장을 정식 개장했다. 구시포·동호해수욕장은 다음달 18일까지 운영된다.

해수욕장 개장에 앞서 사위장 공중화장실 등 시설물 점검하고 해리면과 상하면에서 주변환경정화 활동을 마쳤다.

또한 피서객들이 안심하고 해수욕장을 즐길 수 있도록 행정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변에는 8명의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되고 수상오토바이와 고무보트가 수시로 순찰할 예정이다.

동호해수욕장은 길게 펼쳐진 백사장으로 유명한 곳으로 4km 이상 펼쳐진 모래사장은 모래밭이 가늘고 경사가

완만하여 여름철 많은 피서객이 방문한다. 백사장 뒤로 수백 년 된 소나무 숲이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소나무가 만들어내는 그늘은 한여름에도 시원한 바람이 불어 좋은 휴식처가 된다.

구시포해수욕장은 상하면 자물리에 있는 해수욕장으로, 길이 약 1.7km의 백사장과 우거진 숲이 우거져 있어 아름답고, 해수욕장 1km쯤 앞에는 바다낚시터로 전국에서 손꼽히는 가파도를 비롯하여 무수한 섬들이 흩어져 있다. 이들 섬 뒤로 펼쳐지는 나초는 가히 장관이다.

삼덕읍 고창군수는 "방문객들이 해수욕장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단 건의 불꽃이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